



# 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1997년 3월 24일(월) 제686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 김경주 주간 박재우 편집장 김태형 인쇄인 홍윤주 외대신문사 961-4151, FAX 962-7128 외대학보 혁생기자실(서울) 961-4152, 4406 FAX 961-4183 (용인) 0355-30-4112 서울시 종로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청진리 신 80

## 한총련, 28·29일 총궐기 및 동맹휴업

용인, 동맹휴업 찬반투표 24·25일 실시



지난 18일(화) 서울 배움터에서 진행된 애국의대 투쟁선포식에서 대학과 사회의 8기 모순이 적힌 플랫폼을 학생들이 흰 손도장을 찍어 잊고 있다.

오는 28일(금)·29일(토)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항고비리 진상규명과 남자기 안기부·노동법 전면 무효화를 위한 '백만학도 총궐기 및 동맹 휴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용인대학교 18기 총학생회는 24일(월)·25일(화) 이틀동안 김경삼 정권 조기 터도를 위해 '부제정권, 무정권, 삼인정권, 김영삼정권 불신임 부표 및 동맹휴업 찬반투표'를 통해 '한총련 백만학도 총궐기 및 동맹휴업'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김경삼 정권 불신임 투표는 각 파의 회장과, 하년 대표들이 김의성으로 찾아가 직접 표를 걸 것이며 후생복지관 질문과 지하 학생식당 입구에 중앙무표소를 설치하여 미처 투표를 하지 못한 학생들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 중앙집행부장 고

회장(인문·언어 4군)은 "화요일은 1학년들의 수업이 있어 투표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정치적 무관심한 학생들

이 이번 투표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 하느냐가 중요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총투표 결과는 26일(수) 4시 노천극장에서 참가생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참가생총회 안건으로는 △총학생회 회에 결산 보고 △상임사업 보고 △총 노선 인준 △학자금사업 보고 등이 있으며 특별안건으로 △교지대업 인상이 있다.

한편 한총련 총궐기 및 동맹휴업과 관련된 경기동부본부 지부대회가 28일(금) 성남시청 앞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부총학생회장 김홍철(자연·물리 4군)은 "화우들은 23일 있었던 김경한 문화재를 준비하느라 수고를 많았지만"이라며 "26일 김영삼 불신임 투표부터 26일 경기동부총회, 28·29일 한총련 총궐기로 이어지는 이 흐름을 기반부분 아니라 모든 왕산 7천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명재권 기자

## 조선대 류재을군 시위도중 사망

미·김의 재집권 분쇄를 위한 집회도중

지난 20(목)일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시위도중 류재을(행정 2군)이 사망했다.

이 날 시위는 '미·김의 재집권 음모 분쇄를 위한 민족조선 개강투쟁선포식'이었다. 그리고 이후 남총련 개강투쟁선포식으로 함께 했던 것이다.

목격한 학생들에게 의하면 류군은 시위 대열이 교내에서 시내로 나아나 진경과 대치되었던 중 사수대에서 투석전을 하다가 시커먼 물체에 맞고 주춤거리며 뒤로 몇발자 물러섰다가 미끄러지듯 넘어졌다고 한다. 즉시 곁에 있던 학생들이 류군을 친지방으로 옮겨 몸을 주물렀으나 류군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때 전

하고 더디었다"고 이날 시위의 분위기를 말한다. 남총련은 '언론과 경찰의 사인을 모른채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다'며 "류군의 사인보다 류군이 김영삼타도, 학원자치실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차단 청 이스팔트에 쏘이길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 '앞이 달라'고 담보하였다.

며 그러나 '殃족 몸 부분에 '발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집회와 전경이 담긴 물에 맞아 다른 사람을 세바늘 끌고 조대 92학번 학생은 "공권력이 8.15 연세대 풍일 투쟁 후 마구잡이식 진압을 한다"며 줄밀린 곤봉을 세우며 휘둘렀으며 경찰들이 아래 물을 주민에게 넣고 다니며 던졌다. 또 쇠피로까지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

### 사·령

대학부 정기자  
명재권(서학·독일2)  
김보영(서양·노어2)

사회부 정기자  
이화진(서학·체코2)  
조정하(서학·체코2)

문화부 정기자  
이지나(서양·독일2)

사진부 정기자  
함철우(동양·터키2)  
이상 3월 31일자

## 서울, 작년 총학생회장 박성동군 항소심 예정

서울법원 30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상동(상경·경영 4군)의 항소심이 오는 25일(화)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303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군은 총학생회장에 제임증이던 작년 10월 1일(화)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처벌법 등 연세대 통일후보관 관련된 혐의로 집 앞에서 강제연행되었다.

이어 지난 12월 3일(화) 서울고등법원 판에서 경찰관과 박군에게 징역 5년, 자격 징지 5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지난 12월 20일(금)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박군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은 선고결과에 대한 항소에 의한 것이다.

알립니다

본보는 28(금)·29(토) 일  
한총련 동맹휴업 및 총궐기 취지판계로 다음 687  
호는 4월 1일(화)에 발행됩니다.

### 지면 안내

'교학협의회' 이예요? ...  
3면  
불성실·설정처 영향력 미비...교학협의회 대학광국  
의 모순점

경우는 컴퓨터 정보...  
5면  
개인적 특성과 기호에 맞게  
저렴하게 컴퓨터 구입법

'기록문화회'의 '부끄러운  
문화의식' ...  
6면  
애국과 친일이 엇갈린 역사

농촌정보 ...  
8면  
우리사회의 한쪽, 우리농촌  
의 현실을 되짚어본다

남자기통과 자행하는 김영삼정권 타도하자

한보비리 진상규명, 대선자금 공개하라

# 이대로 보낼 순 없다!

3/28·29 백만학도 총궐기로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말자

년, 지난 해동안 노숙수, 창해인, 권희경, 오영권, 박동학, 이덕연, 김시자, 조수원, 신연숙 열사가 산화해 갔습니다.

년, 그들의 주검이 채 식기도 전에 도시민(민현), 이종호(노경상), 한상근(용인대생), 류재을(조선대생) 열사가 또 ...

여보 보낼 순 없습니다.  
3월 28·29일 백만학도 총궐기로 문민독재경권에 총파산을 선고합시다.

### 백만학도는 이렇게 합니다

-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있는 김영삼 정권 4년에 대한 총파산 선고 및 일기내 피진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한총련 백만학도 총투표에 꼭 참여합니다.
- 노동법. 인기부일 원천부호와 부비리 김영삼 정권 조기타도를 위한 한총련 백만학도 1차 총궐기에 꼭 참여합니다.

대신문사 대신문사 서울고대학보사 속대신보사 속설대신문사 중대신보사 속공대신보사 남부지부  
고대신문사 국민대학보사 서강대학보사 혁신대학보사 동국대학보사 청대신문사 혁신대학보사 북부지부

지난 18(화) 일자로 경기광주  
제30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김영삼정권에 대한 항의를 표명  
하기 위해 백만학도 총궐기에서  
자위권으로 인해 중도기부에서  
부사회에서 박탈되었습니다.

##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서울지역

한국대학신문기자연합 서울지역  
서부지부 대신문사 서울고대학보사 속대신보사 속설대신문사 중대신보사 속공대신보사 남부지부  
고대신문사 국민대학보사 서강대학보사 혁신대학보사 동국대학보사 청대신문사 혁신대학보사 북부지부



## 심 층 보 도

서울배움터 교학협의회 어떻게 진행되나

# 대중 힘실린 진정한 학생참여기구로 발전해야 대학당국, “고려해보겠다”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

서울배움터 96년 민주남부투쟁이 일어난 교수·학생협의회(교학협의회)는 등록금 등 학교운영 전반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기구이다. 총장회의 외부구조는 교학협의회의 구성원은 대학당국 측의 부총장, 각 부처장, 학생측 측은 △자산운영금 증액에 대한 불이행 △행정비기 예산이 확실한 예산 내역 △전시 지원에 중간 건설 기계정비에 25% 지출 △교육내용에 대한 제작자·점수부여 등이다.

즉 교학협의회는 학교운영에의 학생참여를 보장하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제도적 대화창구이다.

교학협의회는 지난 1월 79(토)을 시작으로 이번달 21(금)까지 모두 4번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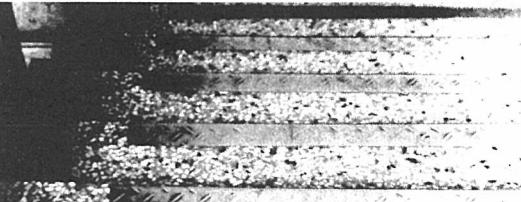
방중에 열린 1~3차 협의회에서는 주로 등록금인상과 관련된 논의가 오갔다. 작년말과 올해초 사안에는 부총장이 제기한 97년 예산에 대한 문제에 있다. 이에 대해 학생측은 △자산운영금 증액에 대한 예산 내역 △전시 지원에 중간 건설 기계정비 25% 지출 △교육내용에 대한 제작자·점수부여 등이다. 그러나 대학당국은 용인배움터 학생대표단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2차 협의회를 무산하는 등 성의 없는 태도를 보았다. 당시 용인배움터는 학부제문제로 서울배움터

에서 청탁농성중이었다. 3차 이후 개막때까지 등록금문제가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다가 대학당국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등록금 인상률을 6.95%로 확정·고지했다. 개막후 첫 교학협의회가 열린 지난 21일(금)에는 학생대표측의 요구로 21일(금)에는 학생대표측의 요구로 대학당국은 등록금문제를 가진 직책이 아니면서 민감한 시안에 대해서는 발언 빠른 태도를 보일 소지가 다수이며 협의된 시안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즉 교육학회원 등과의 간접재배치 문제 △학생복지기금 등 복지학장문제 △학사행정질문제 △위탁운영 문제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학당국은 학생들이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

서 대학당국은 “고려해보겠다”는 식의 성의없고 막연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회의가 공전하거나 지지부진해지는 경우도 많다. 또한 대학당국의 대표로 나오는 부총장과 각 부처장은 특성상 대체 결경관과 집행관을 가진 직책이 아니면서 민감한 시안에 대해서는 발언 빠른 태도를 보일 소지가 다수이며 협의된 시안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즉 교육학회원 등과의 간접재배치 문제 △학생복지기금 등 복지학장문제 △학사행정질문제 △위탁운영 문제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학당국은 학생들이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

은 학생들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합의에 교학협의회가 7300의 것으로 되어야 한다. 7300이라는 지지부진은 학생대표가 학생참여 보강의 목소리를 높일수 있는 베텁목이 될 것이다.

또한 학생대표측은 등록금문제



미끄럼 방지 틀(?) 서울배움터 인문과학관 계단이 미끄럼방지턱이 예상하게 달아 계단을 오히려 미끄럽게 만들고 있다. 가운데 부분에 도드라지는 무늬마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힘들어 기자

④ 급진단… LAN(근거리 통신망)의 문제점을 해부한다

## LAN통신은 그림의 떡

### 비싼 LAN카드, 컴퓨터 없어 무용지물

우리 학교에는 자료의 정보·전산화 정책의 일환으로 양배움터를 포함한 모든 시설에 자체 통신망이 설치되어있으나 일부 공간은 제외한 곳에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학생회관을 비롯한 각 건물마다 LAN(근거리 통신망)통로에 필요

한 LAN포트가 설치되어 있지만 LAN카드가 비싸고 컴퓨터가 없기 때문이다.

LAN카드의 경쟁은 학인점에서 3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하

지만 고가의 컴퓨터를 개인이 구입하기에는 무리다.

그나마 학부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학생회관 2층 전

상실의 컴퓨터조차 LAN이 장착되

어 있지 않다. 또한 찾는 곳으로서 이용은 불편하다.

우선 조작판을 목표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우선 조작감

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재는 일부 노트북을 양 배움터별로 강화하고 있다. 즉 시간이 걸리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인터넷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교 육재정확보, 그 고지를 향해 ④ 학교법인, 네게도 책임이 많아

## 재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부모님 허리춤에서

맘대로 줄이고 늘이는 고무줄 예산… 투명성 보장돼야

### 사립학교에 재단은 무엇인가

학교재단은 사립학교교장 학교를 설립한 법인이며, 이 법인은 법적으로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정부기관을 가지고 있다. 학교를 경영하는 것은 뜻은 무슨 말인가? 경영하는 것은 그저 학교를 유지하고 운영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이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투자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말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일부 사립대학과 재단은 이러한 책임을 다할 만한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 학교 교육재정 기준 미달

우리 외대의 교육재정은 참으로 미흡하는 멀도 밖에는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 재단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경비는 자산전입금과 경비내진입금인데 재단측에서는 자산전입금은 산업체 조향으로 보고 있고, 경상내진입금은 내부 있는 실정이다. 금년의 경상내진입금은 21억이다. 즉 학교발전에 실질적인 투자비자를 이루고 할 수 있는 자산 전입금은 한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무엇을 반증하고 있는가. 바로 재단측에서는 학교발전이나 투자에 소극적 관심 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외부발전을 운용하며 매년 등록금을 고율인상률은 것 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상비 전입금에 학교발전을 위한 투자는 전적으로 외부로부터의 기부금과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을 때 재단은 제대로 역할도 하고 있지 못하다.

### 온인배움터 탄생의 배경

대학당국에서 온인배움터에 새로운 캠퍼스를 확장하여 어떤 식으로 재원을 충당하였는가를 보면 다른 점으로 아연에 질 수 밖에는 없다. 부지와 재단에서 마련되었지만 10억원이라는 돈은 은행으로부터 장기 차입에서 온인배움터를 설립하였다. 여기까지는 학교에서 돈이 없다면 아낄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 치입금을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고 있는가를 보면 답답해질 것이다. 재단측에서는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학생들에게 대처해 학교회계에서 이를 충당해왔다. 임실히하게 이야기 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를 변제



### 97년 예산에서 보여준 대학당국의 허구적 모습

그동안 우리는 학교측의 예산이 거품 성이라는 것을 막은 부분 지역에 온 것 이 사실이다. 전체 예산규모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있은 이후 지난 7·8월 동안 2000억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도 대학당국이 투자해야 할 곳에 비해 학교예산은 턱없이 모자라는 편이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학생등록금을 인

상으로 강제하면서 등록금 인상률은 7% 내외로 결정되었고 우리 학교도 6.95%의 인상률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등록금이 전체 재원의 76%를 차지하는 우리 학교에서는 그만한 수입소실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데 해당되는 결과가 나왔다. 대학당국이 확정 발표한 97년 지금 예산에서 따로 세입총액은 799억 3천 5백만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줄이를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상상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입총액이 2000억 이상 늘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대학당국의 예산이 늘리고 싶으니 늘리고 줄이고 싶으면 줄일 수 있는 고무줄 예산이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학교발전을 위해 학생들 등록금을 고율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대학당국의 논리도 설득력을 잃고 마는 것이다.

### 예산운행 투명성 보장돼야

우리나라만족 교육재정을 극단적으로 피교육자인 학생 내지는 학부모에게 전기시키는 경상비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앞서 예상에서 볼 수 있듯이 고액의 등

글신는 순서

1. 정부의 등록금 인상을 5% 억제 방침 — 숨은 뜻 찾기
2. 학부모에 100만원이 누구 이에이언인가
3. 국가보조금, 이렇게 축출하자
4. 학교법인, 네게도 책임이 많아
5. 한총련, 이렇게 웅친다

록금도 문제이지만 이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재단이 전권을 휘두르고 있고 또한 이러한 예산운영이 민주적이지도 통제하지도 않은데 그 문제의 핵심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단은 외대발전을 운용하여 등록금 고율인상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치 고통분분론을 들려이면서도 모든 부단을 노동자들에게 전기시키는 자본가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구상원장의 신뢰회복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신뢰는 그 자체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예산의 운영을 재단에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매년 신학기마다 이어지는 학내의 등록금을 들리면 같은 걸음을 줄여줄지 알 것이다. 진정한 외대발전은 어느 일정의 회생이 아니라 재단과 학생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의 공동의 노력이 없이는 결코 요원한 것이다.

### 남태원

〈온인배움터 충북생협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집행국장  
동학·아프리카 4〉

### 난 괜찮아'를 연신 중얼거리며 자신의 어울림을 중얼거리며, '저 현철이 도 아버지 표절했다!"

0···한국의 영상이 한화를 (정)  
보일듯 믿을 듯 벗더라.  
사랑을 들쳐보니  
태수와 대신자금이 있다더라.  
(은)

### 심장마비 계절

0···97년 봄, 하늘나라 저승사자 묻는다.

"당신은 누구시오?"  
·조선대학교 다니다 온 류재를입니다  
"여기 어린 임이시오?"  
·개강 집회 나갔다가 무었에 맞아 잘못되었습니다"

저승사자 놀라며

"당신은 그냥 심장마비 아니었소?"  
·마침 지난가던 경강 대일사와 노수  
석 암시 할 가문은 친고마비의 계절  
이고 붉은 언제나 심장마비의 계절이지"

(회)

0···요즘 이른바 알고 있는 '김현철'  
비집으로 통일명을 갖은 가수도 그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그 내용은  
다름아닌 표절!



0···어느날 TV에서 "김현철 문화제가 경희대에서 열릴예정입니다"  
이를 본 03월 오~ 갈렸군. 이번에 확실히 안전기반을 이용해 대선을 정취해보겠다!"  
지나가던 할아버지 "아니 왜 문화제 하는데 큰애(대선)은 얄겠다고 난리야!"  
할아버지2 "이런 맹령이!! 그것도 몰라!! 0301은 문화제가 유럽선인 줄 알단 말이야!!!"  
(은)

### 안전기반부와 큰 배

### 학원 안정화 정책 부활하다 - ④ 학생간부 자역 강화

## 필요하면 꺼내쓰는

### 구시대적 학생회 탄압책

과거 학생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을 재창출하고자 할 때 써왔던 교육사적인 방법이 있다. 복종과 학생회탄압이 바로 그것이다. 중에서도 학생회탄압은 진보학제의 선두적인 학생들의 정당한 행동을 통해 학생회의 불안정화로 학생회간부 자역강화는 그 디딤돌이다.

또 평지문화대의 경우에는 1·2학기

상학평판이나 평점 3.0이상해야 한다는 까닭으로 조항이 있다. 이것 역시 올해 새롭게 조항이 되었거나 작년과 재작년에는 대학당국이 자진하고 후보가 간부를 했기 때문이다. 또 학생회간부는 학생들의 자치능력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다. 학생회간부는 성적에 관계없이 대중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도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 학점조합은 학생회탄압의 구실이며 시대와 맞지 않는 악법으로 즉시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회 간부자역 요청(우리 학교는 평점 2.0이상)은 많은 학교에서 예전부터

김보영 기자

나 현재 동연회장은 복학을 한 상태이고 그램에도 대학당국은 동아리비를 지금 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화아리들에게는 회비를 낼 때로 접근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적극적인 탄압방법이 학생회의 불안정화로 학생회간부 자역강화는 그 디딤돌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성연대이다. 대상

여대의 경우 작년까지는 간부자격요건

이 따로 없었으나 올해 까지기 6학기이

상 8학기이하로 통일명으로 평점이 2.5

이상되는 자'라는 조건이 생겼다. 거기

다 정부 등의 학회연번이나 학사경고

가 한 번이었으나 민족주의 박탈된다

는 조항까지 있다.

전체에 대해 동연회장은 학생회간부

부의 자역강화에 대해 알보기로 한다.

전집자

작년 인세대 통일투쟁 이후에 교육부

에서 발표한 일련의 학생회 지침들은

문이라는 것이 대학당국의 논리다. 그러

### 이문법

### □알립니다

• 30대 총학생회장 박성준 선배님의 편지주소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산 5번지 성동구치소 10번  
138-600

• 사법대 경기학생총회  
때: 3.26(수) 늦은 5시  
곳: 소강당

• 사법대 이동학생회에서는 오는 25일(화)까지 사법대 건물앞에서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서명운동과 함께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하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사법대학생회)

• 무료수족함 강좌

• 정기 등록회 있습니다.  
3월 28일 늦은 5시 노인정으로 모이세요.  
연락처: 015-8306-4823

〈온누리〉

• 동아리연합회 새내기 한미당이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동아리연합회〉

• 깊은 지지점용 디아이리를 3월 18일 6005호에서  
분실했습니다.  
3월 18일 6005호에서 분실  
교문앞 수위실로 돌려주세요  
연락처: 015-393-1978

• 故 류재를 열사의 명복을 빙니다.  
(사회과학생회)

### 왕산골

### □알립니다

• 임실고와 임실고의 한상적인 만남!  
때: 3.25(화) 5:30  
곳: 교양관 휴게실

〈임실고·여고 동문회〉

• 온누리 수족함 대중강좌  
때: 3월 24일 월요일부터 16회 강의  
늦은 6시부터 7시까지  
장소: 공대 201호  
접수: 한의학 연구모임 온누리 수족함  
강의비: 25,000원(강의교재비 포함)

〈온누리〉

• '비둘기 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로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4466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0-4112

• 세내기들을 모집합니다.

선조들이 남긴 그들의 생활과 나라사람의 모습들을 책이 아닌  
몸으로 직접 느낍니다.

세내기 여러분~ 선·후배, 동기들간의 끈끈한 정을 느껴보  
세요~

〈시간사당〉



